고온다습에 세균 '득실득실'…"식중독 예방을"

광주·전남지역 최근 5년간 91건·환자 1945명 발생

식약처 '관심' 단계 발령…청결한 식생활 환경 당부

세균 증식할 수 있는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되는 여름철, 가정과 음식점 등에서 개인 위생관리 등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 4월까지 광주·전남의 식중독 발생 건수는 91건(환자 1945명)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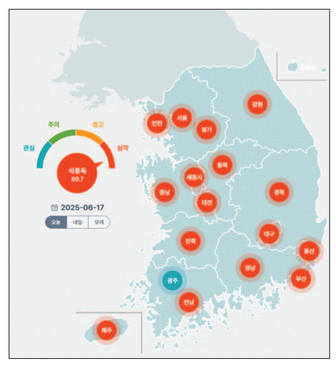
연도별로는 2021년 24건(195명), 2022년 19건(121명), 2023년 21건(1082명), 2024년 20건(416명·잠정)으로 집계됐다. 올해 4월30일까지는 7건(131명)의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같은 기간 여름철(6~8월·올해 제외)에는 6월 8건(137명), 7월 13건(121명), 8월 6건(56명) 이었다.

식중독 발생 장소는 음식점이 64건(1088명)으로 많았고, 학교 외 집단급식 10건(155명), 기타 8건(479명), 학교 7건(197명), 불명 2건(26명) 순이었다.

식약처는 이날 전남 등 전국에 식중독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다만 광주에는 식중독 관심 단계가 내려졌다. 이후 복합조리식품, 어패류, 육류 등을 이달의 식중독 주의 식품으로 지정했다.

식중독 위험도는 관심, 주의, 경고, 심각 4단계로 구분한다.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심각 단계는 설사, 구토 등 식중독 의심 환자는 식품 조리 참여를 중단해야 하며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실제로 지역에서 식중독 발생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11일 광주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29명이 설사와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동구보건소는 당시 유증상자 학생 17명과 해당 학교의 조리 종사자 10명의 직장 도말 및 대변 등 인체 검체와 식재료, 조리도구 등 69건의 환경 검체를 수거해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학생 8명과 조리 종사자 4명에게서 사포바이러스(GI.3·untypeable), 장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균,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등 5가지 바이러스와 균이 나왔다. 하지만 보존식, 음용수, 조리도구에는 아무런 균도 검출되지 않았다.

사포바이러스는 주로 사람 간에 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설사, 구토, 발열, 권태감, 복통이 24~48시간가량 지속된다.

장병원성대장균은 오염된 물(지하수 및 음용수 등)이나 음식으로 전파돼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인다.

식중독 주의 요령은 육류 등은 중심부 온도 75도, 1분 이상 익혀 먹기(어패류는 중심 온도 85도, 1분 이상), 육류·생선·채소·과일용 칼, 도마 구분 사용, 물 끓여 먹기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6월에는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 등에 의한 세균성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식중독 예방수칙과 실천의 중요성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은 오는 20일까지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며, 일부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더울 것으로 전망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막말·폭언 갑질"…공무원들 속앓이

50대 민원인 악성민원 반복…노조, 피해 취합 등 대응

"저희도 소중한 인격체입니다. 지속된 막말과 폭언에 견딜 수 없어요."

광주 일선 자치구 공무원들에게 욕설·지역 비하·성차별성 발언 등 악성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폭증하자 공무원노조까지 나서 피해 상황을 취합하고 공동 대응을 예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1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악성 민원을 일삼은 전남 K인터넷신문 소속 50대 조모 기자와 관련된 피해 사례를 각 자치구별로 종합하고 있다.

기자라는 신분을 앞세워 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위세를 부리고, 갑질을 일삼는 수준이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료를 보면 그는 수시로 전화를 걸어 직원들에게 얼토당토않은 억지를 부리는 것은 기본이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욕설과 막말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공무원 A씨는 지난 3월 조씨로부터 "당직실,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실의 행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판단해달라"는 문의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이 판단할 수 없다"고 답하자 조씨는 고성을 지르며 "후회하지 마라" 등 막말과 함께 욕설을 했다.

B씨에게는 "당직실에 전화를 했는데 남녀직원이 같이 7시부터 2시간씩 사라져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등 성적인 발언을 내뱉기도 했다.

또 C씨에게는 "예의를 갖춰라. 몇 급인데 함부로 하냐", "전라도 공무원들 수준이 이렇다" 등 지역 비하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조씨는 당직 중인 직원의 목소리가 안 좋았다는 이유로 "술 마셨느냐"고 의심하며 새벽까지 욕설이 담긴 전화를 계속하기도 했다.

이어 해당 직원의 직급을 확인하며, 말도 안 되는 민원 접수하는 등 갖은 방법으로 공무원을 겁박하기도 했다.

결국 한 자치구에서는 공무원 내부 게시판인 새올행정시스템에 '조씨로 인한 피해 사례를 파악한다'는 글을 게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앞서 조씨는 전남 나주시에서도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 일부 부서에 출입을 금지당하는 상황도 벌어졌고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조씨는 시청 게시판에 사과문을 남기기도 했다.

이 같은 조씨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각 자치구 공무원노조가 대응에 나섰다.

직원들에게 '용건만 간단하게 할 것, 폭언이나 욕설할 경우 제지할 것을 안내하라'는 등 대응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갑질 상황을 상세히 기록해 둘 것을 당부했다.

또 노조는 조만간 조씨가 소속돼 있는 매체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현재까지의 피해 상황과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법적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조씨가 공무원에 대한 겁박과 괴롭힘 등 그릇된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조씨가 소속된 언론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고, 공직사회 접근을 막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윤용성 기자 yo1404@

'제4회 광산구 장애인생활체육 어울림 한마당' 17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열린 '제4회 광산구 장애인생활체육 어울림한마당'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공굴리기 경기를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불우이웃성금 사용 우체국장 해임 정당"

광주고법,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기각

우체국에 비치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사적 업무지시 등 직장 내 갑질을 한 우체국장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 양영희 재판장은 전남 한 우체국의 별정국장이었던 A씨가 전남지방우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우체국에 비치된 사랑의 열매 불우이웃돕기 성금함에 모인 306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돌렸다.

또 직원들에게 지급된 예금모집수당을 현금으로 반납하게 해 741만원을 빼앗고, 우체국 공금으로 구매한 화장지를 일부 고객들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자체 감사에 착수한 전남지방우정청은 지난해 3월 A씨를 해임 처분했다.

광주지검은 우정청이 '업무상횡령죄를 수사해달라'고 제출한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고, 일부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재판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예금모집수당은 지역행사 찬조금, 고객들의 경조사비, 직원 포상금 등으로 사용했다며 해고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금에 대한 횡령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성금을 임의 사용한 사실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 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 업무를 지시하거나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고 육아휴직 사용에 관한 부당한 요구, 인격 비하성 발언 등으로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징계 경위 등을 살펴보면 해임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SOCIETY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날씨

해뜸	05:18	달뜸	00:05
해짐	19:49	달짐	11:49

미세먼지 확인하세요!

광주	광주	20~32
	목포	19~29
	여수	20~27
전남	순천	19~31
	구례	19~32
	해남	18~30
	완도	19~30
	흑산도	18~25
	고흥	17~31
	진도	18~28

목포	밀물 (고)	06:55 / 19:13
	썰물 (저)	12:19 / --:--
여수	밀물 (고)	01:34 / 14:05
	썰물 (저)	07:58 / 19:56

'회삿돈 5억 횡령' 50대 실형

만년필

○…5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모바일 게임 아이템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5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내려져.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51)에게 징역 3년을 선고.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3년 5월 사이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가전제품 판매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16억2756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 조사 결과 A씨는 고객들에게 가전제품을 판매한 뒤 대금을 본인 계좌로 받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A씨는 738차례에 걸쳐 5억1333만원을 휴대전화 게임 아이템 구입과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임영진 기자 looks@